



3면

“과탄 난 남북 관계, 안타깝고 착잡”

전주매일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음 8월 6일) 제335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대학-산업도시 구축 구체화

도-전북대-새만금청 3차 간 업무 협약 체결

2차전지·K-방산·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대학-산업도시 관련 범지역
적 협력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거점 대학-산업도시(JUC) 구
축을 위해 19일 전북도(도지사 김관
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새만금
개발청(청장 김경안)이 3차 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새만금 거점 대
학-산업도시 구축을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새만금 거점 대학-산업도시를
지역에 소재한 다른 대학들과 공동 운
영하기로 하고, 22일 이를 위한 전북
지역 대학들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날 3차 간 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새만금에 2차전지 특화단지, 방위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및 글로벌
푸드허브를 구축하고, 전북대는 관련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과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과 산업적
활용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이같은 계획들
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
원의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전북대는 이미 새만금 국
가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국방과학
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IIG네
스원, 다산기공 등과 K-방위산업 클러
스터를 위한 협력벨트를 구축하고, 2
차전지 특화지구와 관련해서도 IC화
학과 SK온, 천보, 성일하이텍 등과 새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새만금청-전북대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 총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거점 대학-산업 도시'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있다.

만금 입주 기업의 특화인력 양성과 공
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
해서도 전라북도 반도체 팹(FAB)을
유치해 OCI와 피앤엘세미, 동우하이텍,
오디텍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2차전지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배터리융합공학 전공과, 한화시스템과
의 협력을 바탕으로 K-방위산업을 선

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학과 형태
의 방위산업융합 전공 등도 신설할 계
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산업지형은
이차전지, 반도체, 방위산업 등 최첨단
산업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도-전북
대-새만금개발청 간 협업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
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새만금

은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전북대는 지
역과 산업체, 대학 모두가 상생발전하
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대
학과 지역 모두가 한솥밥의 정신으로
역량을 모아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
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김재훈 기자

전북애향본부, 창립 46주년 행사

‘새만금 예산 복원 범도민 투쟁 본격’

“새만금 사업 정상화” 호소문·결의문 채택 ‘역동적인 전북 만들기 실천 운동’ 도 전개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새
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
상화를 위한 범도민 투쟁에 본격
나선다.

전북애향본부는 19일 전주 그랜
드힐스호텔에서 열린 창립 46주
년 행사에서 새만금 예산 정상화
를 위한 대도민 호소문과 결의문
을 채택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은 30년 넘게 진행돼
온 국가사업이다. 사업은 정상화되
고, 예산은 복원돼야 마땅하다”고
포문을 연 뒤, “우리 애향본부는
지역 발전에 회소사이 들리면 환
영의 목소리를 내며 기쁨을 함께
했고, 지역 현안이 흔들리면 도민
과 함께 저항하며 행동해 왔다”고
밝혔다.

애향본부는 “지역 현안이 부당
하게 침해받으면 분연히 떨쳐 일
어나야 한다. 도민 역량을 모아
응집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향본부는 “우리는 짬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짬
버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새만금
예산을 난도질한 행태에 분노한다.
허위사실로 새만금을 매도하고 전
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규탄한다”며 새만금 예산 보복 사
건에 따른 결의문도 발표했다.

또한 애향본부는 역동적인 전북
만들기 실천 운동도 전개해 나가
기로 했다.

전북애향본부 창립 46주년 행사
에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
시장 윤봉섭 전북상공회의소협회
회장 문정기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장 등 관계자 150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우ungi 초대 지방시
대 위원장을 초청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특강
도 함께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 박차

군산시, 위원회와 함께 사업 추진 중간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수산식품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9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새
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추
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인 새만금 수
산식품 위원회와 함께 사업(용역) 추
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새만금 산업
단지내 2공구에 조성 중인 약 4만 평
규모의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중
합단지(일명 수산식품단지) 사업추진
의 관련 세부 추진 과업인 스마트가공

단지조성, 스마트팩토리 및 제품개발,
해수인·배수시설 등 세부사업에 대
한 중간보고회 개최를 통해 건의(협
의)사항을 수렴했다.

한편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
합단지 조성사업은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물김 등 다양한 지역수산물
을 가공·유통 구조로 인해 타지
역으로 반출 가공되는 실정을 개선하
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에 새
만금개발청, 전북도, 농어축공사 등 다
양한 유관기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되는 사업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북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12억 추가 확보

우기철 재해 대응·쾌적한 친수공간 조성 행정력 집중

전북도가 도내 국가하천의 재해예방
과 쾌적한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 행
정력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19일 환경부 ‘국가하천 유지보
수사업’에서 국비 12억원을 추가 확보
해 도내 만경강 동진강 등 11개(362
km)의 국가하천에 대해 ‘하천법’에 따
라 재해예방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총
사업비는 68억원이며, 이번에 추가 확
보한 12억원은 환경부에서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우기철 재해 대응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유보금으로 도에서 이
중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시설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목적
은 선제적으로 치수·친수시설을 점검
·유지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를 방
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 수문 등
치수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등
급이 낮은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를 추진해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을 강화한다.
또한 하천방람, 제방붕괴 등에 취약
한 구간은 하천준설 등을 통해 매년 이
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한다.
도민들이 친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하천변 생
태공원, 자연거도로, 고수부지 등을 보
수하고 예·제조를 추진한다.
육원만 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체계
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친수공간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부안군
추석맞이

보름달처럼 밝고가득찬 한가위되세요

고향사랑 부안사랑
우리 농수특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부안로컬푸드 특별 판매전

기간

9월20일(수)~9월28일(목) 9일간

장소

부안로컬푸드 직매장(부안읍 매창로 221)

문의처

063.582.6610

곰소만으로 황새우 드시러 오새우~
제1회 곰소만 황새우축제

기간 : 2023. 9. 15. ~9. 26. (운영시간 10:00~20:00)
장소 : 부안군 보안면 신복길 132-60